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재화된 텍스트의
비판적 인식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 희 재

내재화된 텍스트의
비판적 인식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병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희재

인 준 서

최희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는 매 순간 아무 의심 없이 '나'라는 존재로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하나뿐인 존재이며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발자국 떨어져 나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게 되면,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 이들의 생각과 사상, 관념 등이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인은 그 동안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주관적 정서를 화면 안에 추상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해 왔다. 그것이 본인이 가진 유일한 개인적 진실이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본인만의 실존적 기록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정서마저도 사회 안에서 그렇게 느끼도록 교육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교과서, 책, 명언, 종교, TV, 신문을 포함한 수많은 텍스트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현재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텍스트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본인의 위치와, 그 안의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 후, 그 동안 본인의 모든 행위의 준거가 되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은 텍스트의 물리적 해체와 전사, 그리고 번지기 기법을 통해 내재화된 텍스트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가 내재화되는 과정과 비판적 인식에 이르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본인이 석사 과정에서 진행한 작품 10점을 중심으로 내재화된 텍스트의 비판적 인식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3
1) 텍스트의 내재화	3
2) 내재화된 텍스트의 비판적 인식	5
2. 작품의 조형적 특징	9
1) 크랙클 미디어에 의한 텍스트의 물리적 해체	9
2) 전사 기법을 이용한 무의식 속 텍스트와 이미지의 복원	25
3) 번지기 기법을 통한 내재화된 텍스트의 가시화	34
III. 결 론	44

참고문헌

도판목록

ABSTRACT

I. 서론

무엇이든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때 보게 되는 우리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온전히 본인의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관념과 사상, 의견 등이 사실은 어디선가 보고 들은 타인들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본인 작업의 시작점이 되었다.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의 언어가 아닌 내면화한 타인들의 말과 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후, 본인은 지나온 과거와 본인이 속한 사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텍스트라는 형태로 가해지는 모든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 그리고 사회의 가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관심은 본인 작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자연스럽게 본인, 또는 같은 사회 속에서 현재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중 작업에 사용하게 된 텍스트로는 먼저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다양한 명언과 논어, 선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윤리 교과서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와 함께 본인을 이루는 경험의 기록인 개인적인 사진과 그동안 모아온 스크랩북 등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인 작업의 이론적인 배경과 의의를 밝히고, 지금까지 수행해 온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본인 작업이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먼저 내재화된 텍스트의 의미와 그 배경을 소개하고, 비판적 인식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 논할 것이다. 또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해 온 10점의 작업을 그 조형적 특징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의미와 제작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왜 그것을 원하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가 가진 본래의 목소리와 진정한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텍스트의 내재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정한 사회에 속하게 되며, 그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문화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는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채널로 기능한다. 이 때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다.¹⁾ 또한, 거시적으로 볼 때 “문화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라고 말하기도 한다.²⁾ 이렇듯 현재 우리의 삶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텍스트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저자의 죽음」에서 “텍스트는 문화의 수많은 핵심들로부터 나온 인용들로 만들어진 조직체이다.”라고 말했다.³⁾ 문화의 수많은 핵심들에는 역사 속 핵심적인 인물들과 그들의 사상이 녹아 있는 텍스트가 존재한다. 몇 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 시간을 뛰어넘어 아직까지 우리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그들의 생각을 주입 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모든 사상과 개념들을 무비관적으로 내재화하게 된다. 한 예로, 초등학교 때에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좋은 학교,

1) 송효섭, 『문화기호학』, 서울:아르케, 2000, p.161.

2) 위의 책, p.244.

3) 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윤난지 역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눈빛, 2012, p.31.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등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현재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인생의 큰 실패를 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소유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사상가이자 명사가인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1931~1990)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대 자신이 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교활하다. 그들은 ‘너는 크리스마나처럼, 붓다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붓다나 예수, 크리스마나가 되고 싶은 커다란 열망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 열망이 그대 고통의 근원이다.”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며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회피해 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과 세계를 세심하게 보고 깊이 느끼고 접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의미에서 살아 있게끔 강요하기 때문이다.”⁵⁾ 오쇼가 지적하듯이, 문제는 우리의 목적이 붓다나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회에서 주입당한 텍스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빚어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한 주입당한 대로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일 수 없기에

4) 오쇼 라즈니쉬, 『오쇼 자서전』, 김현국 역, 서울:태일출판사, 2013, p.105.

5) 켄 월버, 『무경계』, 김철수 역, 서울:정신세계사, 2013, p.149.

느끼는 이러한 고통의 본질과 억압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과 같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질문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창조하고 삶을 통해 그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개인의 각성과 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되는 이유가 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한 가지 답안을 고르는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애초에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의 성별, 이름, 부모, 가족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러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온갖 현실적인 이유로 이러한 고민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언젠가 누구에게나 이런 커다란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본인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공유하고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평소 일상에서 생각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창작자로서의 소망이자 소명이다.

2) 내재화된 텍스트의 비판적 인식

내재화된 텍스트가 갖는 힘, 그리고 텍스트가 전하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무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가진 힘의 실체를 실제로 느끼게 된 것은 본인이 약 십년 전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때이다. 학부 시

6) 오쇼 라즈니쉬, 『이해의 서』, 손민규 역, 서울:관미동, 2012, p.322.

절, 갑자기 전혀 다른 사회적 맥락에 놓이게 된 후, 새로운 곳,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 그 모든 것을 흡수하느라 바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다른 가치관의 충돌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약 20년이 넘는 동안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교육받아온 나 자신을 다른 문화권에 위치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 동안 내가 믿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나를 구성해온 것들의 정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혼란을 겪으며 나 자신을 다시 처음부터 구성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계기였다.

다른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게 된 예가 있다면 먼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다. “어른을 공경하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본인은 처음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 없는 대화와 수평적인 관계를 보고 다른 사고방식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간에도 직함이 아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존중하는 모습은 동양에서 어른을 대하는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서구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본인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타인과 타인들의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텍스트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다른 맥락으로 존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후, 본인은 커다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뚜렷한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본인이 받아들인 교육과 사회의 시스템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남

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고,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하며, “침묵은 금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등의 말처럼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 등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어머니 쪽의 할아버지는 왜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와 TV광고 속의 남녀 역할의 차이에서도 가부장제의 영향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인의 초등학교 시절 다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체가 체벌을 받아야 했던 기억에서 개인보다는 단체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동양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논리 있게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단체를 위해서 나 하나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받기 보다는 획일화된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튀지 않고 무난하게 단체에 섞여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익혀야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누구나 주위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 노력하고, 원하지 않는 일도 기꺼이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어떠한 남의 목소리를 내면화하였는지도 모르며 사는 삶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진정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체적인 삶은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의 언어로 회피하거나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태도는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본인 또한 사회로부터 주입된 텍스트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인식조차 못하였다. 본인이 맹신했던 텍스트로는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와 같이 겸손을 강조하는 텍스트와 효와 예를 강조하는 유교의 텍스트들, 그리고 모든 것을 공하다고 보는 불교의 가르침 등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텍스트들 중 본인의 의

식과 무의식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으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로 권선징악, 침묵, 그리고 인내와 같은 가치를 말하는 텍스트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읽거나 접해 온 거의 모든 텍스트, 즉 책이나 교과서, 애니메이션, TV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텍스트의 결말은 선한 주인공이 결국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해진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텍스트들이 사회가 선함과 악함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의 무의식에 심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성인이 되고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의심 없이 이 모순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이 불안정함 속에서 나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돈과 명예, 학위, 지식 등만을 쫓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안락한 일상에 함몰되어 이러한 모든 문제의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은 물론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한다. 비록 삶의 위험요소가 늘어날지라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결정, 의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만약 후회하게 되더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권선징악적인 텍스트와 함께 침묵과 인내를 강조하는 텍스트로는 “침묵은 금이다.”, “악담이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면, 원망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등이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준거가 되는 텍스트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기억할 수도 없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텍스트들을 무비판적으로 내재화 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명언이나 속담 같은 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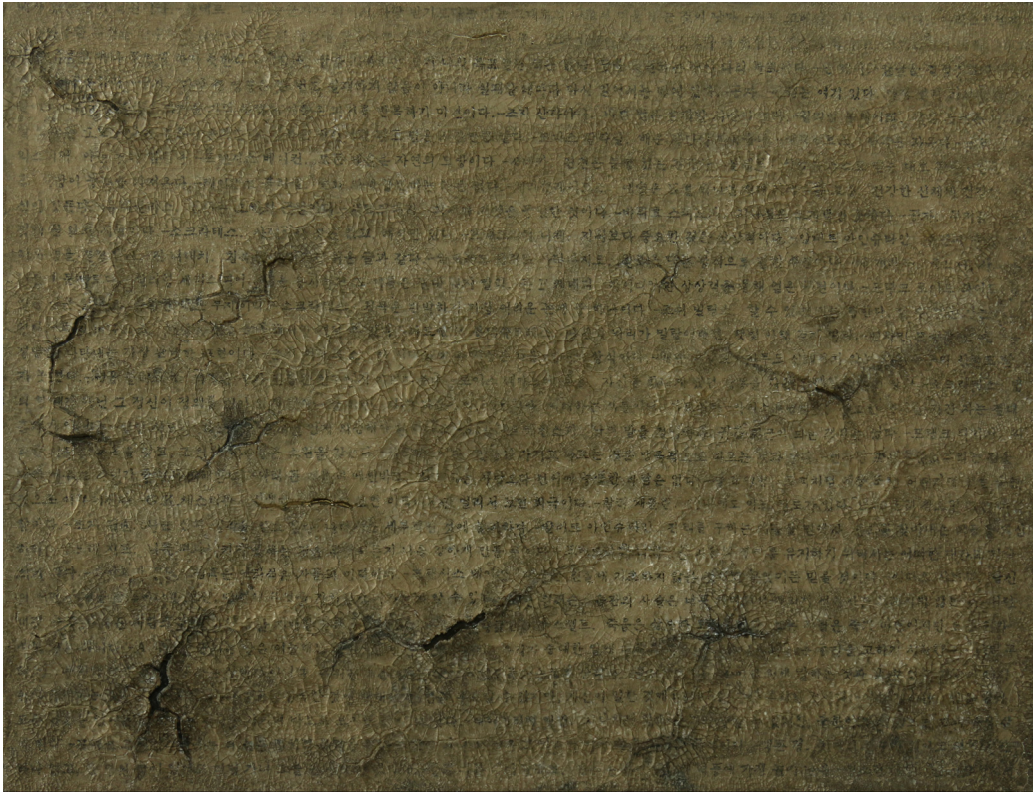
스트들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자각 이후이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가치인 인내와 침묵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루소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이 있는 반면, 조지 잭슨의 “인내에도 어느 정도가 있다. 너무 오래 참으면 그건 비겁함이다.”라는 말도 있다. 또 침묵에 관한 말로는 링컨의 “입을 열어 모든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바보로 보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고, 마틴 루터 킹의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시대와 맥락은 다르지만 침묵과 인내라는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회에서는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한 가치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가는 일의 어려움과 항상 껴어있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것이 본인 작업의 주제가 되었다.

2. 작품의 조형적 특징

1) 크랙클 미디어에 의한 텍스트의 물리적 해체

① 아포리즘(Aphorism)

아포리즘이란 인생의 깨달음이나 교훈 등을 짧막하게 표현한 글을 말한다. 텍스트를 처음 사용하게 된 〈아포리즘〉 [작품1] 은 캔버스에 먹지를 이용해 나뉠 엮매고 있는 텍스트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재현하고, 그것들이 아크릴



[작품1] 아포리즘, 캔버스에 아크릴릭, 41×53cm, 2013

미디어에 의해 자연히 깨어짐으로써 완성된다. 아포리즘이 절대적인 진리라거나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닌데도 본인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무의식중에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작품에 사용된 텍스트들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윈스턴 처칠)
- 내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 (볼테르)
-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윌리엄 블레이크)
- 열망이 능력을 가져온다. (레이먼드 홀리웰)

- 변화 외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 사실이란 것은 없고, 해석만 있다. (프레드리히 니체)
-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 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 받는 것이 낫다. (커트 코베인)
-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냐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자넷 윈터슨)
-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는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정치적 목적이다. (엑톤 경)

불변하는 유일한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본인에게 텍스트들은 현실을 초월하여 영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모은 경로로는 먼저 교과서와 신문, 잡지, 그리고 책 등이 있다.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바로 노트에 적어 놓거나, 신문 같은 경우 오려내어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였다. 이러한 명언들과 책의 한 구절 등이 본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준거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이 이 〈아포리즘〉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크고 거대한 것이 숨어 있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고 소소한 문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부딪히는 상황들마다 이러한 문장들로 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는데 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의 언어를 잊은 채,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만 하고, 타인이 정한 규칙과 시스템 안에 나 자신을 무비판적으로 내맡기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번 작업을 통해 느끼게 된 점이다. 예를 들어,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라는 말을 통해서, 개인의 고난과 사회의 부조리함을 역풍으로 간주하고 더 높이 날기 위해 마땅히 인내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이 작업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미디엄 중의 하나인 크랙클

미디엄(Crackle Medium)의 효과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아크릴 미디엄이란 아크릴화를 제작할 때 쓰이는 보조제이다. 아크릴 미디엄에는 겔 미디엄과 바니쉬, 바인더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 미디엄들의 역할은 약간씩 다르다. 주로 화면에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이며, 표면의 물감을 고정시키거나 작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널리 사용되어진다. 그 중 크랙클 미디엄은 시간이 지나면 물감 표면이 갈라지는 효과를 내는 미디엄으로 본인의 작업을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멍신했던 텍스트들을 물리적으로 해체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크랙클 미디엄은, 문자 그대로 텍스트를 깨뜨림으로써 재료의 성질과 개념이 만나는 지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캔버스에 밑칠을 한 후, 바탕색을 칠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 1:1비율로 출력한 텍스트를 먹지에 대고 볼펜을 이용해 그대로 따라 쓴다. 그 위에 크랙클 미디엄을 고르게 부어 붓으로 펴 바른다. 크랙클 미디엄은 붓는 양과 마르는 시간, 온도 등에 따라 갈라지는 정도가 항상 같지는 않다. 본인의 경우 캔버스 10호 정도에 250ml 병에 담긴 미디엄을 한 병 반 정도 사용하였다. 미디엄이 마르면 표면에 마치 옛 도자기 같은 잔금이 생기는데 그 위에 바탕색보다 약간 어두운 색의 아크릴 물감을 한 번 바르고 휴지나 수건 등으로 닦아내면 그 잔금이 더욱 강조된다.

마치 몸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캔버스 전체에 이 텍스트들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반복적인 과정은 외부의 텍스트들이 아무 비판이나 걸려짐 없이 본인에게 내재화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단단히 굳어진 텍스트들을 크랙클 미디엄을 이용해 균열을 일으키고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은 내재화된 텍스트들을 깨고 진정한 자아의 회복을 원하는 본인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의 실체

를 다시 한 번 발견, 해체하고 텍스트에 대한 맹신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이 〈아포리즘〉을 포함한 다음 네 가지의 작업이다.

② 선의 나침반

〈선의 나침반〉 [작품2] 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현각 스님이 엮은 〈선의 나침반〉이란 책에 대한 작업이다. 이 작품도 캔버스에 먹지를 대고 텍스트를 쓴 뒤 크랙클 미디어로 깨뜨린 작업으로 텍스트에 얽매인 본인의 모습과 맹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갈라진 표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디어와 환경이 만들어낸 우연적 효과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본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텍스트이다.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선불교에 심취해 그와 관련된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현재에도 그 가르침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교 사상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에 맹신보다는 객관적인 거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하는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인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고 나름의 견해를 밝혀왔다. 불교는 자기 자신, 즉 이러한 ‘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선의 나침반〉에서는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하는 질문을 깊이 함으로써 ‘오직 모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우리의 본성, 참 나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⁷⁾ 또한 불교의 목적은 “우리 마음

7) 숭산, 『선의 나침반1』, 현각 엮음, 허문명 역, 서울:열림원, 2001, p.28.

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⁸⁾ 여기서 부처의 가르침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고통이 존재하며 그럼으로써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⁹⁾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¹⁰⁾ 이것이 바로 경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선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어질 때, 일체가 끊어진 적멸의 경지이다.
-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일체 법은 두루 걸림 없이 하나이며 본래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다. 이름과 모양이 없는 일체가 끊어진 자리다. 아는 주체도 알 대상도 일체 경계가 없다. 하나 속에 만물이 있고, 만물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 역접은 한 순간과 같고 한 순간은 역접과 같다.¹¹⁾
- 부처는 모든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주선사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른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 밝은 해가 허공에 높이 떠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찌하여 조각구름 하나가 해를 가리는가? 사람마다 모두 그림자가 있어 한 치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밝지 않을 수 있는가? 온 세계가 불구덩이다. 어떤 삼매를 얻어야 타지 않겠는가?¹²⁾

위의 내용 중 “역접은 한 순간과 같고 한 순간은 역접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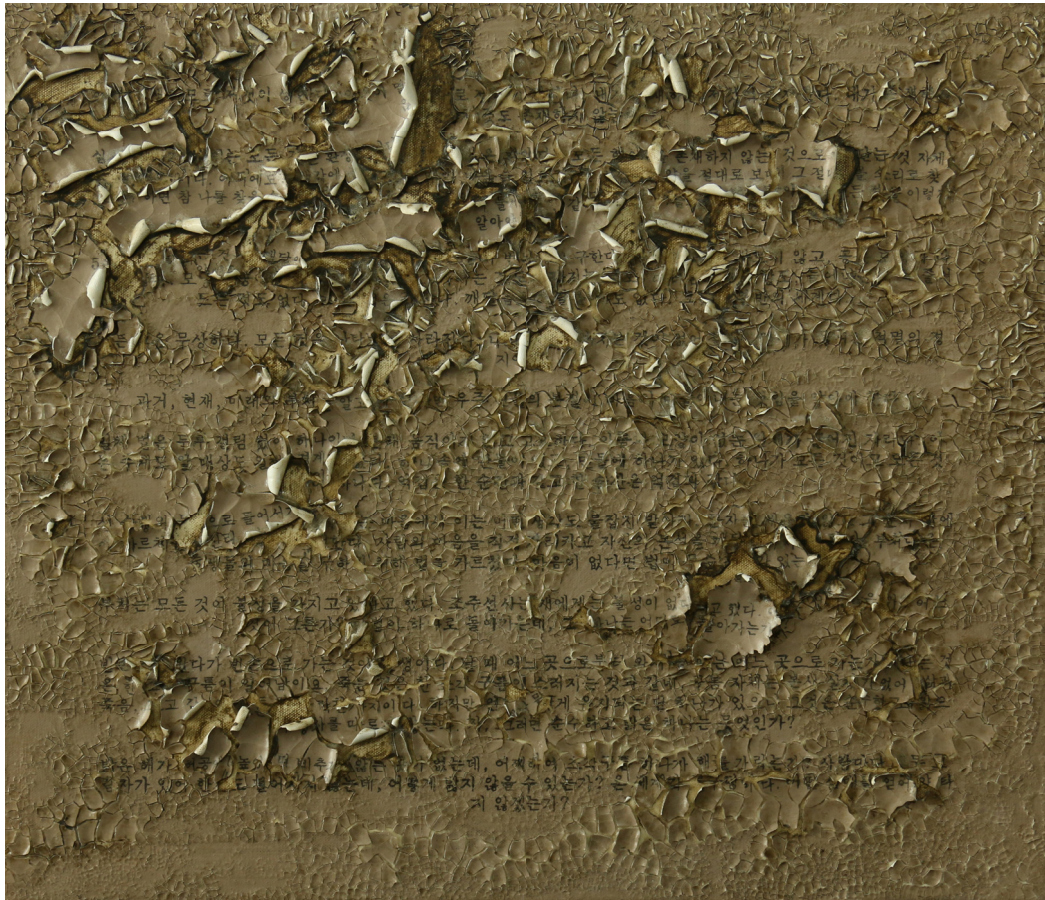
8) 승산, 『선의 나침반1』, 현각 엮음, 허문명 역, 서울:열림원, 2001, p.29.

9) 승산, 『선의 나침반2』, 현각 엮음, 허문명 역, 서울:열림원, 2001, p.32.

10) 위의 책, p.33.

11) 승산, 『선의 나침반1』, 현각 엮음, 허문명 역, 서울:열림원, 2001, p.182, 196, 209.

12) 승산, 『선의 나침반2』, 현각 엮음, 허문명 역, 서울:열림원, 2001, p.131, 176.



[작품2] 선의 나침반,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53cm, 2013

지금 이 순간 또한 한때 불확실했던 미래의 반영이며, 미래라는 시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현재 이 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본인은 〈Daily Drawing Project〉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1일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약 7년 여간 매일 한 장씩을 그렸던 것으로, 그 날의 느낌과 감정을 추상적인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개인적인 일기장에 손톱만한 크기로 그려진 이 드로잉들을,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학부 시절 가로, 세로가 각 6인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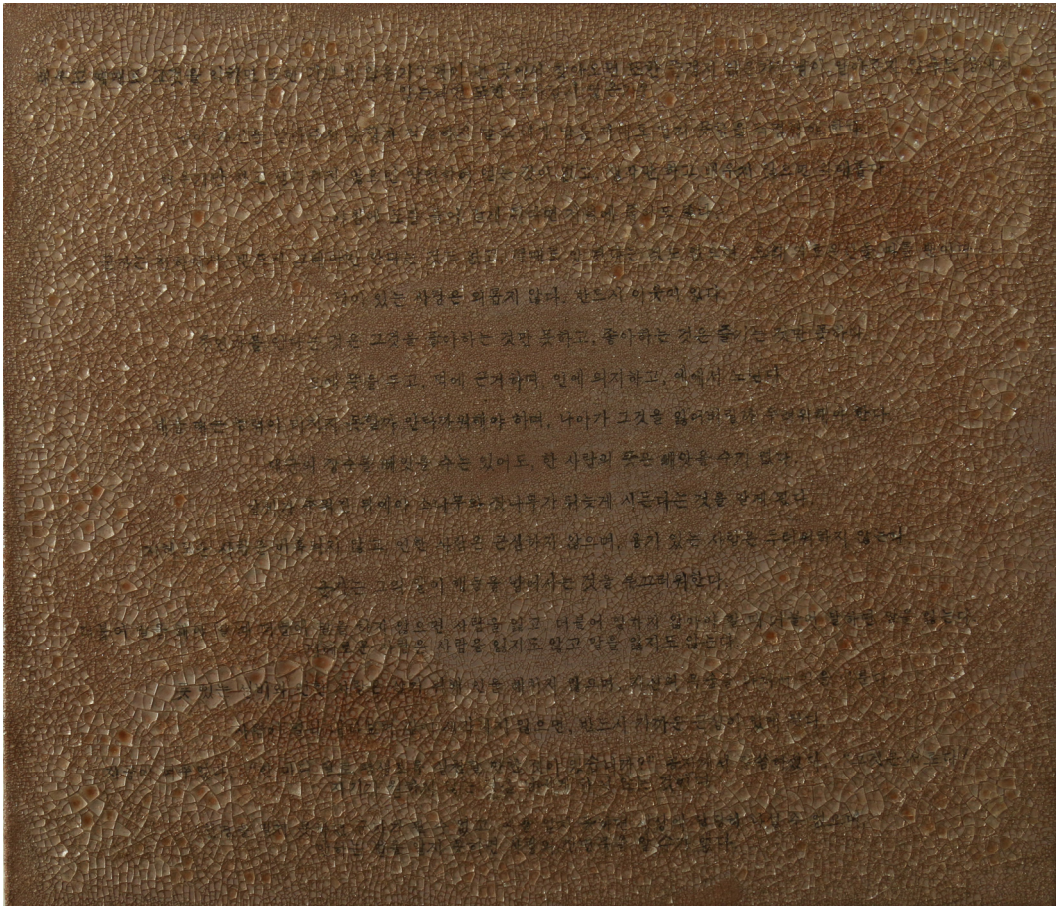
종이에 다시 옮겨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비판적인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이 드로잉들은 본인 삶과 시간의 기록이자 개인적 진실, 그리고 의미의 부재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미술 대학에 진학하고 본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작가는 1966년부터 ‘오늘’ 시리즈(the Today series)를 그려온 일본 출신 개념미술작가 온 카와라(On Kawara, 1932~2014)였다. 예술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삶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를 통해 다시 한 번 개념 미술과 인간의 실존적 문제, 그리고 추상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정된 이름과 형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 사상은 작업 뿐 만이 아닌 본인 자신의 삶의 방식과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불교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답을 주지는 않는다. 이번 〈선의 나침반〉 작업을 통해 그러한 한계와 인간의 굴레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남의 개념에 기대지 않는 진정한 홀로서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도판1] 온 카와라, 〈5 FEB. 2006〉,
캔버스에 아크릴릭, 26.7×34.3cm,
2006



[작품3] 논어,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53cm, 2013

③ 논어

공자의 <논어> [작품3]은 동양의 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고전적인 텍스트이다. 책으로 읽지 않았더라도 우리 생활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공자의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아침에 도를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 대군의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뜻은 빼앗을 수가 없다.
-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 군자는 그의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 뜻 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을 이룬다.¹³⁾

이 작품 또한 캔버스에 먹지를 대고 글씨를 쓴 후, 크랙클 미디엄으로 깨뜨린 작업이다. 〈논어〉를 비롯, 텍스트의 물리적인 해체를 그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작품들은 모두 약간 밝은 갈색 톤의 바탕색과 검은 글씨, 그리고 미디엄에 의해 갈라진 표면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작품들에 열은 황토와 갈색 빛의 바탕색을 칠하고 검은 글씨를 쓴 이유는 살에 문신을 새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작품들에 등장하는 텍스트들의 폰트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서체인 바탕체를 사용하였고, 먹지를 대고 그대로 따라 씌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맹신과 그 획일성에 대한 신념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을까. 위에 언급한 논어의 내용 중, “아침에 도를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뜻 있는 선비와

13) 공자, 『논어』, 김형찬 역, 서울:홍익출판사, 2013, p.34, 40, 60, 82, 111, 112, 163, 171.

인한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을 이룬다.”와 같은 예를 보면 ‘도(道)’나 ‘인(仁)’이라는 가치가 목숨보다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치들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렇듯 더 큰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를 수많은 이야기나 역사, 영화 등에서 종종 보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접하며, 과연 무엇을 위한 ‘도’이며 ‘인’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재화된 이러한 신념 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알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의식은 바뀌었으나 몸에 체화된 이러한 텍스트들의 힘은 없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겸손, 의로움, 도, 이러한 가치들을 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내 모든 행위의 준거로 삼았음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었음 또한 깨닫게 되었다.

군자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고 예를 중시한 공자의 가르침은 몇 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예(禮)는 “전통 속에 녹아 있는 인간정신과 문화의 품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¹⁴⁾ 공자는 예를 강조하며 질서와 규칙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도덕적 생활을 하는데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장점이 되지만 이 규범이 형식화되고 이것이 굳어지면 사회를 폐쇄적 질서로 만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갖는다.”¹⁵⁾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된 공자의 가르침을 모두 부정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공자의 논어 또한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생각이 담긴 책이며,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논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생각 없이 따르는 것

14) 이현아, 「공자의 교육사상과 윤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63.

15) 위의 글, p.55.

은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몇 천 년을 이어 온 이러한 텍스트가 가지는 힘과 울림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④ 윤리교과서

본인에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텍스트 중에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가 있다. 교과서라는 틀에 맞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동서양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짧고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삶은, 남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만족에 그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매우 이상적인 삶이 될 것이다.
- “사람이 아니면 참지 않고, 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옛 사람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분함과 어려움 등을 스스로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유교에서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덕도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 인권 존중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자기 자신의 것 못지않게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바탕인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덕목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황금률이나 역지사지의 원칙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 진정한 인격자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처럼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며, 사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1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 『고등 학교 윤리』, 서울:교육부, 2001, p.21, 26, 31, 34.



[작품4] 윤리교과서,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2cm, 2013

이 작품은 100호 캔버스에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먹지에 대고 쓴 뒤 미디엄으로 갈라지게 만든 작품이다. 커다란 화면 전체를 윤리 교과서의 내용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본인이 영향 받은 텍스트의 실체와 구체적 내용을 규모 있게 표면화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본인의 바람을 표현하였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규범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같은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따라야 할 기준을 교육시킨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내

재화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본인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에 받게 되는 이러한 윤리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교과서 본문에 의하면 ‘고상한 삶’은 “자신이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보람 있는 삶이라 생각”하는 삶이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분함과 어려움 등을 스스로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희생정신과 감정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수많은 가치 중의 하나이고 우리는 우리 삶을 이끄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모든 수업은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교과서의 이해와 암기가 교실 안 모든 시간의 주를 이루었다.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으며, 주어진 텍스트들을 따라 가기도 벅찬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윤리 교과서는 본인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그 어떤 오류나 비합리성을 찾아내지 못하였었다. 한 때 삶의 지표였던 그 때의 윤리 교과서를 현재도 소장하고 있을 만큼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 텍스트였으나 지금 다시 읽어보니 현재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많은 부분이 많았다. 타인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희생까지 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텍스트의 주문은 그저 사회 속 톱니바퀴의 일부로서 비판의식 없이 온건한 시민이 되길 바라는 사회의 압력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교과서를 암기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텍스트를 접하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과 무엇이든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일일 것이다.



[작품5] 리좀, 캔버스에 아크릴릭, 60.5×72.5cm, 2013

⑤ 리좀(Rhizome)

리좀이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의 저서 <천개의 고원>에 나오는 개념이다. <천개의 고원>은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하여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책이었다. 방대한 배경지식과 문학 작품 같은 표현들,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까지,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그 중 리좀에 대한 부분 또한, 어려웠지만 본인에게 많은 영감을 전해 주었다. 책의

내용 중 “땅밀줄기와 공기뿌리와 헛뿌리와 리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도 사랑스럽지도 정치적이지도 않다.”라는 구절을 맹신하며 학부 4학년이던 2006년부터 약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리즘 시리즈〉를 제작하였다.¹⁷⁾ 리즘이란 땅밀줄기의 다른 말로,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된 중심이 없이 모든 위치가 중심이 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리즘에는 구조, 나무, 뿌리와 달리 지정된 점이나 위치”가 없고 선들만이 존재한다.¹⁸⁾ 작품에 나타난 텍스트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땅밀 줄기의 다른 말인 리즘은 뿌리나 수염뿌리와 완전히 다르다.
- 리즘은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접속되어야만 한다.
- 땅밀줄기와 공기뿌리와 헛뿌리와 리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도 사랑스럽지도 정치적이지도 않다.
- 리즘은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 리즘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고 사이-존재이고 간주곡이다.¹⁹⁾

리즘에 대한 개념은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도와주며, 사회 속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리즘 개념에 감명을 받아 본인은 학부 4학년 때 리즘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모든 현상들은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였고, 점 하나하나를 사회 속의 개인으로 생각한 본인은 수많은 점들과 그것들을 잇는 선들로 이루어진 아크릴 회화 작업을 학부 졸업 후에도 약 20여 점 정도 제작하였다. 그 당시에 본인은 이러한 추상적인

17)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새물결, 2003, p.35.

18) 위의 책, p.21.

19) 위의 책, p.18, 19, 3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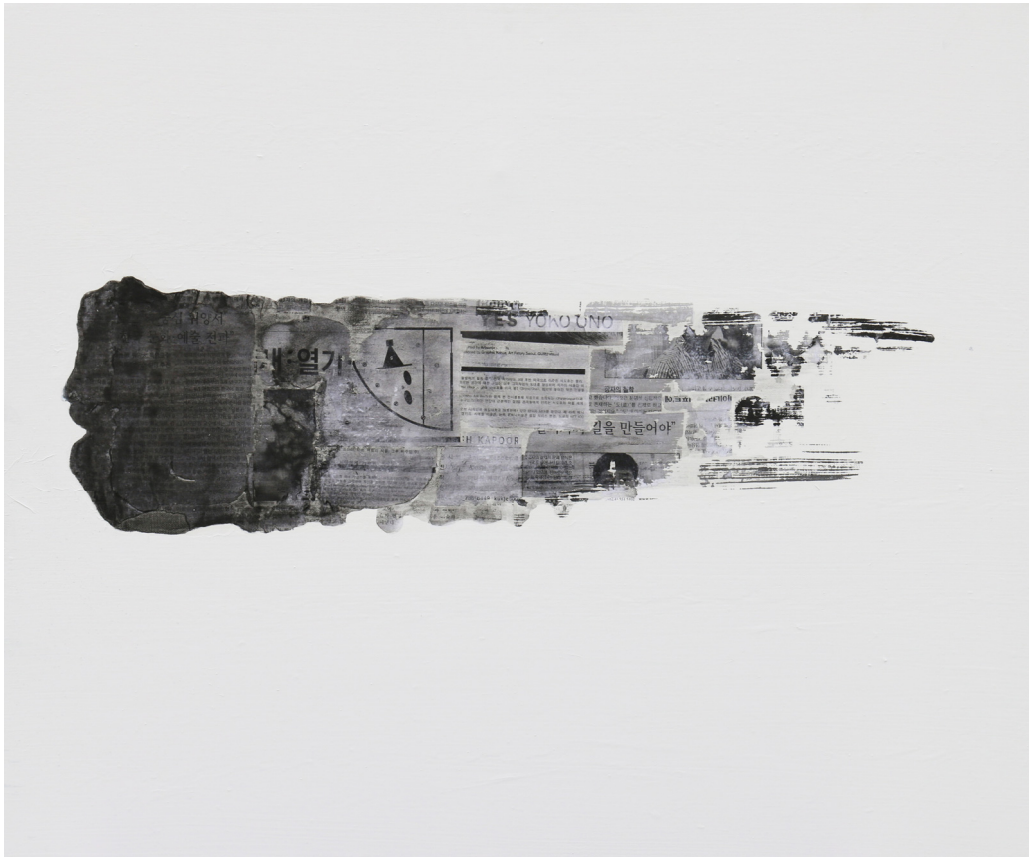
선들의 아름다움으로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시각화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리즘 시리즈〉가 계속 될수록 점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의 사상, 남의 언어를 일러스트레이션화 하였을 뿐, 나 자신의 목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게 되자 결국 이 시리즈를 그만두게 되었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하나인 리즘 개념을 맹신했던 본인의 모습을 반성하며 제작한 작업이 이 〈리즘〉 [작품5]이다. 리즘에 대한 텍스트를 깨는 이번 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시각적 문법을 갖추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전사 기법을 이용한 무의식 속 텍스트와 이미지의 복원

① 창조 의 기원 #2

〈창조의 기원〉 시리즈는 하나의 붓 자국에서 시작한다. 그 붓 자국 안에는 다양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이 그동안 영향 받은 수많은 정보와 기억 등을 의미한다. 이전 텍스트 작업에서 본인은 본인에게 영향을 준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사회에 의해 주입되어진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텍스트 깨뜨리기 작업이 본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생겨난 표면적 의식의 시각화였다면 이번 〈창조의 기원〉 시리즈는 그 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개인적 무의식의 시각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작업은, 나를 구성하는 모든 텍스트들을 벗어난 후에도 과연 진정한 나 자신이 존재하는가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인은 이번 〈창조의 기원〉 시리즈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스크랩북의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전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전사 기법은 텍스트



[작품6] 창조의 기원 #2, 캔버스에 아크릴릭, 60.6×72.7cm, 2014

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 베끼는데 쓰이는 방법이다. 티셔츠와 현수막에서부터 도자기나 미술 작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 기법은 그 방법만큼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의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보다 더 현실과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여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작품에 쓰인 이미지로는 그동안 모아온 신문기사와 전시 팸플렛, 광고, 공연이나 전시 입장권 등이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맥락의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한 화면에 구성함으로써 본인의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선가 보고, 듣고, 읽은 것의 총합일 뿐이라는 생각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술에 있어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창조란 무엇이며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번 작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본인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가 바탕이 되었다.

먼저 십 년 넘게 모아온 스크랩북 중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들을 스캔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에 출력한 뒤, 아크릴 미디엄을 이용해 캔버스에 전사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모든 방식, 모든 상태를 막론하고 회화는 사유이다.”²⁰⁾ 화면 안에 하나의 붓 자국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 작업은, 하나의 완성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붓 자국 하나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연습과 경험, 연륜 그리고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② 창조의 기원 #3

〈창조의 기원 #3〉 [작품7] 은 본인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된 작업이다. 화면 안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들은 본인이 창조적인 작업을 행할 때 쓰이는 내부적인 재료로써, 지금까지 읽은 신문이나, 책, 전시 팸플릿 등이다. 이렇듯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시각화함으로써 본인의 관심 분야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작업의 실마리를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화면의 중앙에는 불교식 참선으로 뇌개발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보이고 왼쪽에는 쉬라제 허쉬아리(Shirazeh Houshiary, 1955~)와 제

20)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윤정임 역, 서울:현대미술사, 1999, p.281.



[작품7] 창조의 기원 #3, 캔버스에 아크릴릭, 80.3×100cm, 2014

니 홀저(Jenny Holzer, 1950~)의 전시용 엽서가 위치해 있다. 쉬라제 허쉬 아리는 이란 출신 작가로 섬세한 추상적 언어로 화면의 깊이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니 홀저는 텍스트를 이용한 LED작업과 프로젝션 작업 등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이다. 두 작가 모두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로 두 전시 모두 기억에 남아있다. 두 이미지의 중간에는 오래된 신문기사가 하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고식(姑息)’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 신문의 해석에 의하면 “대중 퀘맨 자리는 언젠가 터지나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 위에는 시청 앞에 모인 인파의 사진이 있고, 화면 오른쪽에는 고려불화전의 팜플렛과 또 다른 전시들의 자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화면 안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본인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다. 이 작업을 포함한 모든 〈창조의 기원〉 시리즈에는 캔버스에 전사하는 기법이 쓰여 졌는데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캔버스에 전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준비할 때 전사할 출력물은 잉크젯 프린터가 아닌 레이저 프린터에서 출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출력할 때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반전시켜야 최종 이미지가 원하는 대로 보이게 된다. 본인은 예전부터 모아 온 스크랩북에서 본인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자료들을 선별해 스캔을 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 후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좌우가 다르게 반전시키고,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캔버스에 이미지를 전사할 때 필요한 것이 아크릴 보조제인데 시중에는 젤 미디어와 바니쉬 등 많은 종류가 나와 있다. 본인은 무광의 매트 바니쉬(Matte Varnish)를 전사에 사용하였다. 매트 바니쉬를 넉적한 붓을 사용하여 캔버스에 원하는 모양으로 바른 후, 출력한 이미지가 캔버스에 닿게 얹어서 붙인다. 이 때 바니쉬가 생각보다 쉽게 마르는 경향이 있어 빨리 이미지를 붙이거나 건조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보조제를 사용해야 한다. 전사할 이미지가 출력되어 있는 종이를 캔버스에 붙여놓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약 하루 정도가 걸린다. 캔버스에 붙여놓은 이 종이가 완전히 마르면, 그 위에 물을 뿌린다. 종이 위에 물을 뿌리면 종이가 흐물흐물해지는데 이 때 손으로 때를 벗기듯이 종이를 문질러 벗겨내면 캔버스에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 종이를 벗겨낼 때 충분히 벗겨내지 않으면 나중에 건조 후 하얀 막 같은 것이 생기므로 이미지가 완전히 보이더라도 수차례 더 물로 닦아내야 한다. 본인은 종이를 벗겨낸 후 다시 한 번 표면에 바니쉬를 발라 하얀 막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하였다. 모든 전사 작업이 끝나고 캔버스가 완전히 마르면 그 위에 원하는 대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8] 창조의 기원 #4, 캔버스에 아크릴릭, 80.3×100cm, 2014

③ 창조의 기원 #4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원본 없는 복제와 이미지의 차용 등은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창조의 기원 #4> [작품8]은 아무런 주석이나 각주 없이 홀로 완벽한 원본이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바탕이 되어 시작하게 된 작업이다. 예술가들의 영감이나 창조적 아이디어의 허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게 되었다.

<창조의 기원 #4>는 <창조의 기원> 시리즈 중의 하나로 이전 작품인

〈창조의 기원 #3〉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하나의 붓 자국에서 시작된 이 시리즈는 다음 작품으로 갈수록 각 화면의 한 부분으로 확대해서 들어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제작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업을 위해 포토샵에서 〈창조의 기원 #3〉 파일의 부분만을 잘라내어 하나의 독립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밝기와 명암을 조정하고 출력을 한 뒤 캔버스에 미디어를 써 이미지를 전사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는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던 고려 불화대전 전시를 보고 가져온 팜플렛의 일부와 또 다른 현대 작가의 전시 팜플렛 중 일부이며 화면 전체에 커다란 붓 자국이 지나가고 있다.

〈창조의 기원 #3〉의 오른쪽 윗부분을 확대한 이 작업에는 나의 붓 자국이 지나간 곳에만 고려불화 이미지가 전사되어 있다. 그 부분을 택한 이유는 그 곳이 고려 불화와 같은 과거의 붓 자국부터 본인의 붓 자국까지 이어지는 붓 자국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본인이 칠한 하나의 붓 자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본인이 영향 받은 수많은 작품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화면 안의 고려 불화를 그린 사람도 그 작품을 위해 아마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듯 붓질 하나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정보, 의미 등을 시각화하여, 역사 속의 또 다른 맥락에서 반복되는 붓질의 순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개인의 붓 자국이 모두 다른 이유는 각자가 겪어 온 시간과 모든 경험들, 그리고 사유의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붓 자국 시리즈에 〈창조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의 붓 자국이 창조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창조의 기원이 되는 본인의 무의식과 경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의 붓 자국 안에 창작자의 모든 것을 담고자 시작한 이번 작업은 〈창조의 기원 #8〉에서 마무리된다.



[작품9] 창조의 기원 #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2cm, 2014

④ 창조의 기원 #8

〈창조의 기원 #8〉 [작품9] 는 텍스트가 아닌, 직접 찍은 사진을 전사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수 백 장의 디지털 이미지들을 포토샵에서 작게 축소시키고 A4크기로 이어붙인 다음,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 후 사진들을 각각 손으로 찢어낸 다음 미디어를 이용해 한 장씩 화면에 전사하였다.

작품에 쓰인 사진들은 모두 본인이 찍은 개인적인 사진들로 주로 풍경, 인물, 건축물 등 일상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들은 대부분 디지털카메라가 막 보급되던 시기인 2003년 이후부터 찍은 것들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궁, 하늘공원, 한강, 뒷산 등 서울의 이곳저곳을 기록한 사진과 학교의 캠퍼스, 본인이 예전에 살던 동네, 집에서 바라 본 풍경,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 건물 등이 있다. 특히 사진 속에 보이는 옛 건축물 중에 절이 많은데 그 당시 불교에 대한 본인의 관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면의 정중앙에는 아주 작게 본인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 물결의 중간부분에는 본인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면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붓질 안에 이러한 작은 사진들이 뺨뺨이 전사되어 있는 구성으로, 본인에게 있어 창조의 기원이 되는 이러한 모든 기억들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창조의 기원 #8〉 은 〈창조의 기원 #4〉 의 한 부분을 확대하여 제작한 작업이다. 〈창조의 기원 #4〉 한 부분의 붓 자국만을 따서 100호 캔버스에 옮긴 후 그 붓 자국 안에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전사하였는데, 이러한 개인적 기록물인 사진을 이용하여 나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경험과 기억을 이 작업 안에 압축하고자 하였다. 〈창조의 기원〉 시리즈는 본인의 무의식과 경험들의 실체를 파악하여 본인 자신이 계속 창작해 나가는데 있어 내부적 흐름과 방향성을 찾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3) 번지기 기법을 통한 내재화된 텍스트의 가시화

① Paper Deep Conviction

잉크와 종이는 오래된 기록 수단이기도 하며 인류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매체이다. 종이 신문과 책 등 이미지와 텍스트를 전달하는 본래의 기능은 지금과 같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잉크는 종이에 닿는 순간 종이를 자신의 빛깔로 물들이며 스며들어간다. 본인은 이번 〈Paper Deep Conviction〉 작업을 통해 종이와 잉크라는 재료가 가진 이러한 물성과, 텍스트가 미치는 영향력을 형상화하고자하는 본인의 의도를 결함해 보고자 하였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듯 텍스트가 본인의 의식 속에 스며드는 정도를 형상화하고자 한 이번 작업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잉크의 번지기 효과를 위해 물로 희석시킨 다양한 농도의 잉크를 용기에 준비해 놓은 후, 미리 잘라 놓은 수채화용지를 잉크에 담갔다가 꺼내 말린다. 잉크를 입힌 종이가 완전히 마르면, 텍스트를 먹지에 대고 씌으로써 하나의 드로잉이 완성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묽은 것부터 농도가 짙은 것까지 약 대 여섯 개의 용기에 검정색 잉크를 풀고, 그 중 두 세 개의 잉크를 하나의 드로잉에 사용하였다. 주로 맑은 물에 종이를 한 번 담갔다가 잉크가 담긴 물에 담갔는데 이는 잉크가 종이에 더 쉽게 번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잠식 정도가 심한 텍스트가 쓰인 종이는 물에 담그지 않고, 바로 짙은 농도의 잉크에 담갔다. 종이에 텍스트를 먹지에 대고 쓴 이유는 그 텍스트 한자 한자를 본인 글씨체가 아닌 책에서 보는 그대로의 글씨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드로잉들 모두 잉크가 아래쪽에서 위로 번져간다. 잉크에 담갔다가 뺀 드로잉들을 벽에 세워서 말렸는데 이는 잉크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흐르는 힘과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힘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내는 조형적 효과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영어 구문 중에 “Beauty is only skin deep.”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름다움(외적인 미모)은 가죽(피부) 한 껍질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문장을 응용하여 “Text is only paper deep.”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텍스트는 종이 한 장의 두께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표현을 이용한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작업에 〈Paper Deep Conviction〉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기, 음파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 등이 있다. 종이 두께에 불과한 신념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이번 작업은 형체 없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텍스트들의 힘을 시각화하고자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Paper Deep Conviction〉은 작은 드로잉 약 500개가 모인 작업이다. 드로잉들은 가로, 세로 모두 약 20cm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화면 중앙에 텍스트 한 줄이 위치해있고, 각각 번진 잉크가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형태의 이미지가 화면을 채우고 있다. 잉크가 위쪽으로 많이 번진 정도로 본인이 그 텍스트에 잠식된 정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농도가 더 진할수록 그 맹신의 정도가 심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업에 쓰인 텍스트들은 시, 소설, 논문, 명언 등 다양한 곳에서 가져 온 것으로 본인이 그 동안 모아온 것들로부터 출발하였다. 500개의 문장 중 몇 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탈무드)
- 누구인들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느냐? (논어)
- 세상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지 다락방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체스터필드 경)
- 광풍은 아침 한 나절을 불지 못하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노자)



[작품10] Paper Deep Conviction
(부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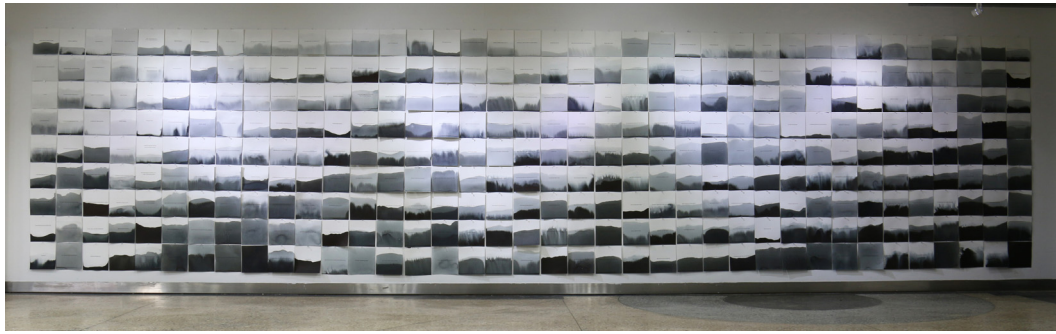


[작품11] Paper Deep Conviction
(부분), 내가 경전을 읽고 있는 사이,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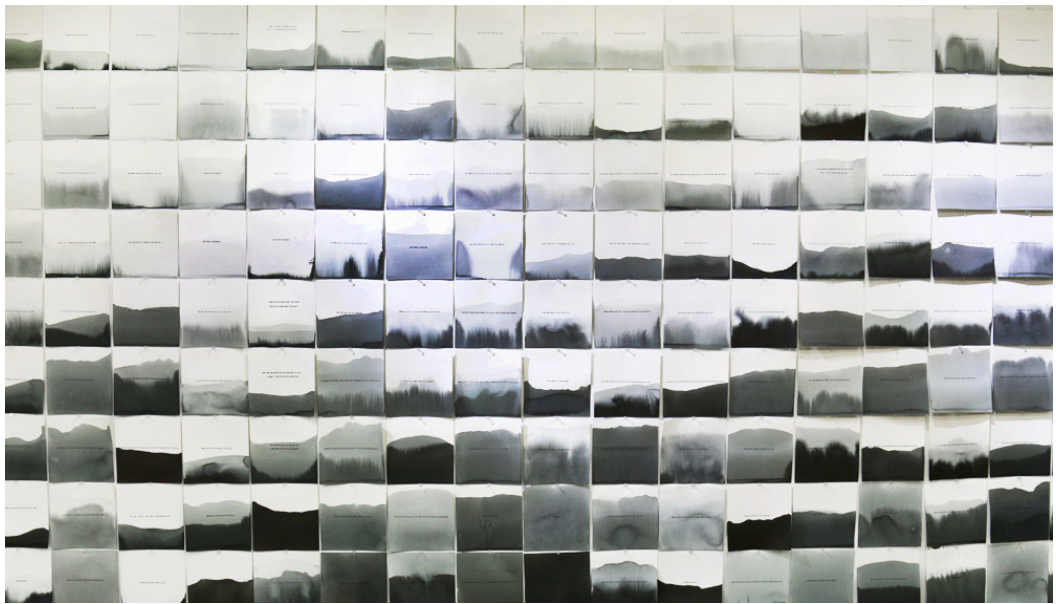
-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이성복)
-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인슈타인)
- 한 마리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모든 개들이 그 소리에 따라 짖는다. (잠부론)
- 별을 따려고 손을 뻗는 자는 자기 발밑의 꽃을 잊어버린다. (제레미 벤담)
- 가시에 찢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필 페이)

예를 들어 〈작품10〉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내도 움이 다시 돋는다.”는 범구경에 나오는 구절로 화면의 아래쪽 부분에만 깊은 농도의 잉크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하이쿠²¹⁾ 중 하나인 〈작품11〉 “내가 경전을 읽고 있는 사이 나팔꽃은 최선을 다해 피었구나.”는 화면 중간 텍스트가 있는 정중앙을 약간 넘어서는 지점까지 잉크가 높게 번져있다. 이를 보아 〈작품11〉이 〈작품10〉보다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 큰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작품11〉의 문장을 읽고 화자의 심정에 감정을 이입하게 된 계기로는 항상 책이나 다른 사람의 언어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무비판적인 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체스터필드 경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지 다락방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작품11〉과 같이 항상 책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려 했던 본인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1) 하이쿠란 5,7,5의 음수율을 지닌 17자로 된 일본의 정형시이다. 주로 자연풍경이나 계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작품12] Paper Deep Conviction, 종이에 잉크, 180×760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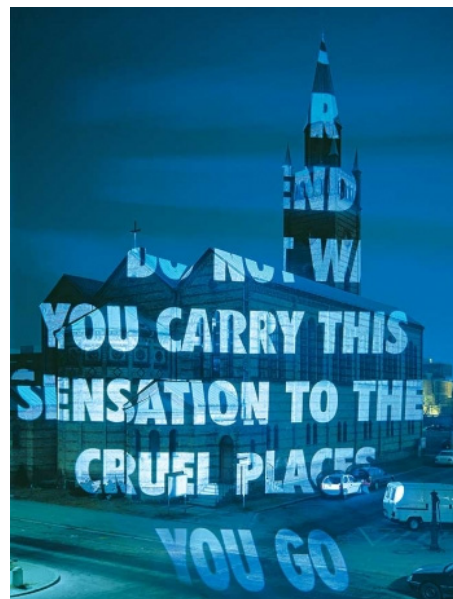
[작품13] Paper Deep Conviction(부분), 종이에 잉크, 2014

예전 작업들에서 한 화면을 텍스트로 가득 채우는 형식을 사용하였다면, <Paper Deep Conviction> 에서는 하나의 작은 화면에 한 문장만을 정중앙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관객이 독립된 문장 하나하나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문장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훨씬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를 전시할 때는 각 드로잉들을 사방 약 1cm정도 간격을 두고 벽에 붙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도 같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화면을 텍스트로 가득 채우는 형식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 작업을 해 오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제니 홀저(Jenny Holzer, 1950~)가 있다. 그녀는 초기의 <진부한 문구들(Truisms)> 작업부터 LED, 프로젝션, 정부의 공문서를 이용한 작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을 제작해 오고 있다. 1977년 그녀는 수백 개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진부한 문구들(Truisms)> 을 발표하였는데, 이



[도판2] 제니 홀저, <Truisms> , 전광판,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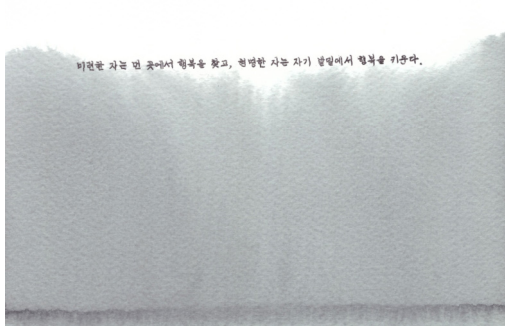
[도판3] 제니 홀저, <Xenon for Berlin> , 프로젝션, 2001

문구들은 거리의 포스터와 광고판, 티셔츠 등에 인쇄되었다. 그녀의 텍스트는 “대부분 언어와 권력,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금기나 도덕률로 여겨지는 다수의 짧은 문장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신념이 언어를 통해 내면화된 사회적 이데올로기임을” 일깨웠다.²²⁾ 또한,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신념과 편견을 다룸으로써 진실에 대한 견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²³⁾

〈Paper Deep Conviction〉 드로잉들의 500개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구들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장들 중 가장 많은 패턴은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하라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와 “가시에 찢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듯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고통을 유발하는 모순된 현실을 참고 견디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모순이 있다면 정면으로 마주보아 해결하며 나아가야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맹신에 의한 무조건적인 인내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만 할 뿐이다.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의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무엇이든 당연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맹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는 노력이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할 것이다.

22) 오유진, 「제니 홀저의 텍스트 작업에 나타난 정치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67.

23) 위의 글, p.20.



[작품14] Paper Deep Conviction (부분), 미련한 자는,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작품15] Paper Deep Conviction (부분), 별을 따려고 손을 뺀 자는,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는 내용과 함께, 커다란 이상을 좇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는 텍스트들도 많았다. 비슷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미련한 자는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기 발밑에서 행복을 키운다 .
- 별을 따려고 손을 뺀 자는 자기 발밑의 꽃을 잊어버린다.
- 짐승을 잡고자 뒤쫓는 자는 태산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행복, 별, 짐승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이상과 목표를 미련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현재 든 이상적인 미래이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의 가치판단은 타인이 아닌 개개인

의 몫이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의 이상, 목표를 설정해 달려 나가는 것의 가치와 그에 따른 책임도 각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또한,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도 우리의 사고를 한정짓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선택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가 과연 존재할까하는 의문과 함께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선택을 해왔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500개의 문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침묵에 관한 것이다. 침묵에 관한 텍스트 중 거의 대부분이 침묵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는 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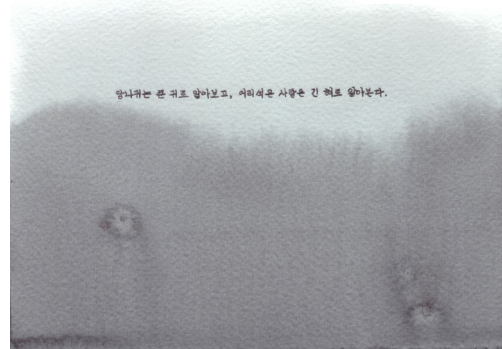
- 침묵은 금이다.
- 침묵은 다른 방식으로 펼친 주장이다.
- 당나귀는 큰 귀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본다.
- 침묵은 반박하기 가장 어려운 논쟁 중 하나이다.
- 모든 말소리는 침묵 속에 사라지지만, 침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듯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왔다. 특히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침묵이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정 또는 사회에서 교육시켜온 가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 침묵은 겸손이 아닌 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를 더 공고히 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 자신이 침묵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그 침묵의 대가가 언젠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옴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는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말 속에서 진리는 깨어 있고, 말 속에서 진리와 허위에 대한 능동적인 결단이 내려진다.”²⁴⁾



[작품16] Paper Deep Conviction (부분), 침묵은 금이다,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작품17] Paper Deep Conviction (부분), 당나귀는 큰 귀로 알아보고,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24)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최승자 역, 서울:까치글방, 2014, p.35.

Ⅲ. 결 론

“나는 직접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왜 내가 고타마 붓다나 보디다르마,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와 통찰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았다. 나는 나의 이해와 나의 통찰에 따라 나의 삶을 산다.”²⁵⁾

어떤 의미에서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다. 사회가 보지 않으려 하는 것들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본질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가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허점들을 보고, 객관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한다. 또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대중들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깨울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며,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내재화된 텍스트와 그 비판적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텍스트에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 힘의 잠재력을 잘 알고,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텍스트의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텍스트의 창작자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만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다수의 편에 서서 침묵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존재의 엄숙함을 아는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타인이 가진 가치 체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성장시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물음들과 지금까지 다듬어

25) 오쇼 라즈니쉬, 『오쇼 자서전』, 김현국 역, 서울:태일출판사, 2013, p.280.

은 본인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크랙클 미디어를 이용해 내재화된 텍스트를 깨는 첫 프로젝트는 텍스트에 대한 맹신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첫걸음이 되었다. <창조의 기원> 시리즈는 나라의 개인의 역사와 무의식의 탐구를 통해 진정한 창조에의 길을 모색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Paper Deep Conviction> 작업에서는 그동안 맹신했던 500여 개의 텍스트들의 영향력을 시각화함으로써 텍스트들을 객관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텍스트와 사회시스템의 역동적 관계와 그 안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조건을 좀 더 구체적인 시각 언어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려한다.

본인에게 예술이란 세상과의 소통 수단이자, 무엇이 가능한지를 본인의 삶을 다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고, 그로 인한 의식의 각성 등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에 본인이 행하는 창작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공자, 『논어』, 김형찬 역, 서울:홍익출판사, 2013.
- 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눈빛, 2012.
-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최승자 역, 서울:까치글방, 2014.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연구개발위원회, 『고등 학교 윤리』, 서울:교육부, 2001.
- 송효섭, 『문화기호학』, 서울:아르케, 2000.
- 송산, 『선의 나침반』, 현각 엮음, 허문명 역, 서울:열림원, 2001.
- 오쇼 라즈니쉬, 『오쇼 자서전』, 김현국 역, 서울:태일출판사, 2013.
- 오쇼 라즈니쉬, 『이해의 서』, 손민규 역, 서울:판미동, 2012.
- 오유진, 「제니 홀저의 텍스트 작업에 나타난 정치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현아, 「공자의 교육사상과 윤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새물결, 2003.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윤정임 역, 서울:현대미학사, 1999.
- 켄 윌버, 『무경계』, 김철수 역, 서울:정신세계사, 2013.

작 품 목 록

[작품1] 아포리즘, 캔버스에 아크릴릭, 41×53cm, 2013	10
[작품2] 선의 나침반,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53cm, 2013	15
[작품3] 논어,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53cm, 2013	17
[작품4] 윤리교과서,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2cm, 2013	21
[작품5] 리즘, 캔버스에 아크릴릭, 60.5×72.5cm, 2013	23
[작품6] 창조의 기원 #2, 캔버스에 아크릴릭, 60.6×72.5cm, 2014	26
[작품7] 창조의 기원 #3, 캔버스에 아크릴릭, 80.3×100cm, 2014	28
[작품8] 창조의 기원 #4, 캔버스에 아크릴릭, 80.3×100cm, 2014	30
[작품9] 창조의 기원 #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2cm, 2014	32
[작품10] Paper Deep Conviction(부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36
[작품11] Paper Deep Conviction(부분), 내가 경전을 읽고 있는 사이, 종이 에 잉크, 20×20cm, 2014	36
[작품12] Paper Deep Conviction, 종이에 잉크, 180×760cm, 2014	38
[작품13] Paper Deep Conviction(부분), 종이에 잉크, 2014	38
[작품14] Paper Deep Conviction(부분), 미련한 자는,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41
[작품15] Paper Deep Conviction(부분), 별을 따려고 손을 뻗는 자는, 종이	

에 잉크, 20×20cm, 2014	41
[작품16] Paper Deep Conviction(부분), 침묵은 금이다, 종이에 잉크, 20×20cm, 2014	43
[작품17] Paper Deep Conviction(부분), 당나귀는 큰 귀로 알아보고, 종이 에 잉크, 20×20cm, 2014	43

도 판 목 록

[도판1] 온 카와라, 5 FEB. 2006, 캔버스에 아크릴릭, 26.7×34.3cm, 2006	16
[도판2] 제니 홀저, Truisms, 전광판, 1986	39
[도판3] 제니 홀저, Xenon for Berlin, 프로젝션, 2001	39

ABSTRACT

A Study on Critical Perception of Internalized Text : Focusing on Author's own artworks

Choi, Hee Jae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Every moment, without any doubt, we live and interact with others as individuals. We believe we are unique and have our own thoughts and emotions. However, if we observe ourselves from a distance, we realize we are made up of other people's concepts and ideas.

I have been visualizing subjective sentiments through the language of abstraction since I thought that they were only individual truths and existential records of myself. However, at one point, I began to challenge society's expectation of us. I became aware that textbooks, sayings, religion, TV, and newspapers strengthen the existing social system and ideology of society and furthermore place expectations of individual conformity. I also found that I accepted these texts without

criticism, and realized the importance of regaining my original voice. Thus, I began to consider my position and identity in Korea, which is a patriarchal capitalist society based on the Confucian concept. With this understanding, I visualize the inner impact of text by means of physical deconstruction, photo transfer, and spreading ink.

O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ssue. And I will discuss about critical perception of internalized text based on ten pieces of artworks I have created during my master's degree program.